

## 시험·평가지원 요망

### 94년도 제1차 소재협의회 개최

협회의 분야별 자율협의체중의 하나인 소재협의회가 10월 25일 협회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그동안 협의회만 구성된채 그렇다할 안전이 없어 회의가 없었는데 중형항공기 사업이 본격화 됨에 따라 항공기 소재부품의 시험평가와 소재부품산업의 진흥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13개 업체가 참석한 회의에서는 의장사인 대신금속의 박수현 대표이사가 회의를 주재했고, 우리나라 소재/부품의 품질인증 기관인 기계연구원에서 김학민 박사와 조경식 실장이 출석했다.

기계연구원의 김학민 박사는 항공기 소재부품의 시험/평가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창원 기계연구원원의 항공재료연구 발전계획을 설명한 후 벨사 및 록히드사와의 품질인증업무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러시아 및 중국과의 항공·우주재료 공동연구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설명했다.

협회에 시험평가 전문기관 설치로 건의한 서울엔지니어링은 외주물량 처리시 자체 시험평가 수단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하고, 시험설비 구입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신금속은 고가의 시험평가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업체에 임대해주는 외국의 사례를 설명하며 정부의 시험평가 부문에 대한 지원정책을 요구했다.

회의결과 항공기 소재 부품산업 진흥을 위해 기계연구원을 항공우주 소재부품에 대한 전문 시험평가기관으

로 육성하고 소요장비의 확보를 위한 건의서를 협회명으로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항공기 소재부품산업의 진흥에 대한 업체의 건의사항을 취합하여 소재협의회를 거쳐 대정부 건의키로 했다.

## 방미 일정등 결의

### 한·미 산업협력 Subgroup Meeting 준비회의 개최

10월 26일 협회회의실에서 한·미 산업협력 Subgroup meeting 준비회의가 열렸다. 삼성항공등 11개사 대표가 참석한 동 회의에서는 회의일정과 토의안건을 확정하고 산업시찰 대상업체를 일부 조정했다.

일정은 11월 27일 출국하여 12월 5일 귀국하는 7박9일동안으로 잠정 결정되었다. 첫날인 28일에는 미국 워싱턴주 미 항공우주협회(AIAA)에서 한·미 항공산업 협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29일에는 개별면담을 가진후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미국내 보잉사등 여러 업체의 공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 본체분과심의 참석

### 다목적실용위성 관련으로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본체개발을 심의하는 본체분과심의회가 10월 14일 상공부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협회에서는 김영갑 기획관리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본체의 6개부분별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서와 총괄주관기관과 주관기관의 협약서 양식등 2가지 안건이 심의되었다.

심의결과 부분별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서는 별 이견없이 통과되었으나 총괄주관기관(KARI)-주관기관(국내 6개기업)간 개발계약에 해당하는 협약서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되었다. 협약서 내용중 수정된 부분은 개발계약의 해약에 관한 부분으로 해약조건과 지체상환금에 대한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 현안문제등 협의

### 제6차 다목적실용위성 추진위원회 참석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과기처 연구개발조정실장) 회의가 10월 18일 과기처 상황실에서 개최되어 협회에서는 광병구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동 회의에서는 다목적 실용위성 사업계획의 일부수정안, 6개 부분체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정부와 총괄주관기관 및 총괄주관기관과 부분체 주관기관간의 협약서등 3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 해외 협력기관인 TRW사와의 1차 협상결과를 보고받았다.

회의결과 총괄주관기관과 6개 부분체 주관회사간의 협약서중 지체상금, 기술료징수, 공인회계사 검증등 일부 쟁점사항은 이를 보완하여 11월초까지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 업계 동향 조사

### 생산, 투자, 종사자등 수지통계 합쳐 데이터베이스화

협회는 국내외 항공우주산업 동향

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그동태를 회원사 및 관계당국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 동향조사는 매월 5일을 기한으로 국내업체의 사업별 전월 생산실적, 투자 및 인력변동사항 등을 수치적으로 집계하여 전산화하고 기타 국내외 산업동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동향조사는 각 업계의 자료가 주기적으로 집계되어야 하므로 회원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되는데 동향조사와 관련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통계정착을 위해 전산화를 서두르고 있다. 타 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가 몇 안되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통계가 부족했으나 협회에서는 앞으로 산업통계를 적극 발굴하여 이를 데이터 베이스화할 예정이다.

통계조사는 주기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되어야 하는데 각 기업들의 집계가 늦어 앞으로 작업이 수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수출 활성화 모색 항공우주부문 애로 타개도

항공우주산업의 수출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다. 동 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에 장애가 되는 금융, 세제, 제도등 국내외 제반문제점과 수출촉진을 위한 조치 및 대책을 회원사를 대상으로 폭넓게 조사하여 관련기관에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8월 22일 회장단사 수출담당부서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한 1차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 상호협력등 논의 보잉사 한국지사 부시장과 면담

곽병구 상근부회장과 김태희 국제담당이사는 10월 18일 63빌딩에서 보잉사 한국지사장(Mr. Myers)을 만나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Myers씨는 “보잉사의 소형항공기분야의 부시장이 12월중 방한하여 정부관계자 및 협회, 업계대표와 면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과의 중형항공기 공동개발에 대한 질문에는 10%이하의 지분참여를 예상한다고 말하고 B7J7계획에 일본이 참여를 검토하다 중단하여 일본의 참여가능성은 적고 중국과 합작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중 중형항공기 공동개발에 대해서 “보잉이 참여하면 오랜 경험을 살려 판매와 사후지원 및 이익보장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한미 산업협력 항공기분야 Subgroup meeting시 한국 방문단이 보잉사를 방문하면 Evertt의 세계 최대의 B777 조립공장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잉사 한국지사장과 협회 임원과 는 비정기적으로 이러한 면담을 계속하고 있다.

## 국내 항공우주 전문가 현황 데이터베이스화

국내 석·박사급 항공우주 전문가의 연구실적이나 경력사항을 검색할 수 있게 됐다. 협회는 항공우주 관련기관이 제출한 항공우주 전문가현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작업을 7월부터 시

작하여 현재 완료단계에 있다.

검색항목으로는 학력 및 경력사항을 비롯하여 소속기관, 직위, 전화번호 등 일반현황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연구실적과 현재 추진중인 연구분야도 포함되었다.

1차로 420명에 대한 자료입력을 완료하였으며 협회는 이번 작업을 계기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항공우주 종사자 현황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 3/4분기 수입 증가세 원재기 도입 증가로

금년 3/4분기 항공기 수입추천 및 관세감면 확인실적을 집계한 결과 3/4분기의 항공기 수입은 2/4분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재기의 수입증가로 민수 수입추천의 경우 270% 증가했다. 3/4분기중 원재기 5대가 수입추천을 받았는데 아시아나에서 3대, 대한항공 1대, 삼성항공이 1대씩 각각 도입할 예정이다.

군수용의 경우 KFP사업의 4차계약분 물량이 수입되기 시작하여 2/4분기에 이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63page 참고자료 참조)

## 임직원 체력대회 실시

춘계 체력대회를 10월 28일 관악산에서 가졌다. 서울대쪽 관악산 입구에서 출발하여 정상의 삼막사까지 올라갔다. 오후 3시경 하산하여 전직원 볼링대회를 가졌는데 기획과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